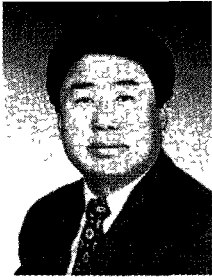


# (사)열사협의 존재는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이다.

신봉식/대전·충남지부장



지난 4월 26일에 있었던 일이다.

협회 제7기 정기 대의원 총회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대전충남지역의 지회장 및 운영위원 10여명과 차안에서 담소하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이제는 (사)열사협이 잘 될거라는 확신이 든다는 얘기였으며 총회의 회의가 지난 7년을 뒤돌아 보건데 이렇게 민주적으로 진행되었던 적이 없었다는 얘기가

지금으로부터 7년전 나는 열악한 열관리분야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쳐일해보겠노라고 최선을 다해 일해왔건만 자신을 돌아보건데 과연 이뤄놓은게 뭐가 있던말인가?

지부장으로서 대전충남지역의 임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99년도 1월에 있었던 정기 대의원 총회때는 저희 대전충남지역의 대의원들이 중앙본부의 운영방침이 잘못되었다고 많은 항의를 한적이 있었다.

당시 임시의장이던 현 백두인회장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전임회장(서주원)께서 "협회가 어려운데 이렇게 운영을 어렵게 하도록하면 지부를 없애버리겠노라"는 협박성 발언에 우리 모두가 분노

와 실망을 안고 돌아 갔었다.

그 뒤로 지부의 운영이 과연 어떠했겠는가?

내가 지부의 임원이라 했어도 아마 협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지난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기에 몇자 더 적어보겠다. 98년 여름으로 기억한다. 협회 비상임이사인 김재영 에너지정보센터 사장께서 지부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유인즉 지부장인 저를 그만두도록 해야되겠다는 취지로 서회장의 특사자격으로 내려왔던 것이다.

김재영 이사께서 지부의 자세한 내용을 들은 뒤, 서회장이 얘기 했던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하면서 지부에 잘못이 있는게 아니고 오히려 중앙본부 서회장의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였다. 그 뒤로 김재영이사도 서주원씨와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또한 나중에 안 일이다.

지난 1월에는 백두인 회장과 조주현 감사가 각지부 감사차 방문한 적이 있는데 나를 비롯한 각 지부장의 원성과 협회 설립이래 처음 실시한 지부감사안을 이제야 알았다며 협회운영의 개혁의 틀을 잡은 시점도 각지부 방문이 있던 이후부터인 걸로 나는 알고 있다.

나는 협회지부장이기전에 근 30여년간 내사업(보일러, 공장 수질관리)을 하다보니 협회운영에 문제점을 경영 mind 측면에서 바라볼수가 있었다. 지금의 백두인회장은 그간 협회의 이사와 지부장들이 약 6~7년간 협회의 기술이사로서

의 직무를 지켜봐 오면서 또한 이번에 회장이 되어 그의 경영 mind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었다.

첫째, 회원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협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며

둘째, system에 의하여 운영되어지는 협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셋째, 시대에 맞는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넷째는 미래를 향하여 계획적인 투자를 할 줄 아는 협회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협회의 이사진과 감사 그리고 각 지부장들이 무엇 때문에 그 동안 협회의 근간인 뿌리를 지탱해 왔으며, 또한 현 백두인 신임회장의 운영방침에 박수를 보내고 있겠는가를 우리 열관리사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천여명 가까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젊은나이에 장로의 직분을 받아서가 아니다 우리협회와는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처장, 부장, 과장 등 그 많은 직원들 중에서 단 한사람도 좋지 않은 평가를 한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 협회장과 공단이사장과의 만남에 이어 각 지부의 지부장과 공단의 지사장과의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 지고 있는 것 모두가 한 단체의 노여가 어떤 경영 mind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의 미래가 주어진다사 사실이다.

나는 지부장의 자리에 연연해서가 아니다 그 많은 설움 받아가며 지부를 지

켜왔는데, 이제야 지부장으로서의 뜻을 이룰 수 있겠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지부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전임회장은 각 지부의 대의원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지부장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대의원을 선임하였었다. 지부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중앙본부가 튼튼해 지길 바랬겠는가?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었다.

현 신임 백두인 회장이 가장먼저 개혁했던게 지부에 힘을 실어주고자 대의원 선임을 지부에 일임하였다는 것이며 직원들의 computer가 오래되어 down되어 가며 사용해 오던걸 전임회장이 1월에 구입하여 자신이 사용하던걸 직원에게 주었으며 모든 직원에게 최신식 computer를 설치해 주었다는 것 자체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운영 방침이라 할 것이다 이제 경기지부장도 뜻맞은 새로운 분으로 거의 인선되었다는 소식에 감사를 드린다.

생텍쥐베리는 물은 생명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고 말했다던가?

협회운영에 있어서 등하불명(燈下不明)이었던 지난날의 어두운 과오를 빨리 털어버리고 백두인회장의 열린 경영 mind에 나는 힘을 실어 드리고 싶다.

(사)열사협의 존재가치는 우리 열관리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그 자체라고 나 또한 전국의 열관리사들에게 외치고 싶다.

컨트롤기기의 명가 - 하이컨트롤스 http://www.hicontrol.co.kr

## 흔들리지 않는 명성 - 하이컨트롤스

최고를 찾는 것은 모두가 한결같습니다.

**LANDIS & GYR**

**Honeywell**

**giuliani anello**

- ▶ Gas Filter (가스필터)
- ▶ Gas Governor (가스거동기)
- ▶ Oil Strainer (오일스트레이너)

**C.E.M.E. spa**

- ▶ 경제적인 가열 ▶ 높은 사용안락 ▶ 신뢰성
- ▶ 다양한 규격 ▶ 화상의 위험
- ▶ 사용유체 : Water • Hot Water • Steam Gas • Oil • Air

**LANDIS & GYR**

- ▶ C.E.M.E. spa
- ▶ SIGMA/MI/VI
- ▶ DUNGS technic
- ▶ LANDIS & STAFA

영양사업

- ▶ 오일 가스버너 컨트롤기기
- ▶ 버너의 온도 및 압력제어기 ▶ 화염감속기
- ▶ 열리모터 ▶ 액류제타 ▶ 가스밸브
- ▶ 가스누설 확인장치 ▶ CEMM 단원자변

**LANDIS & GYR**

- ▶ C.E.M.E. spa
- ▶ SIGMA/MI/VI
- ▶ DUNGS technic
- ▶ LANDIS & STAFA

영양사업

- ▶ 오일 가스버너 컨트롤기기
- ▶ 버너의 온도 및 압력제어기 ▶ 화염감속기
- ▶ 열리모터 ▶ 액류제타 ▶ 가스밸브
- ▶ 가스누설 확인장치 ▶ CEMM 단원자변

**하이컨트롤스주식회사**

■ 서울사무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1258번지(중앙유동단지 다동 4412호) TEL/(02)2612-6346(4F) FAX/(02)2612-6348  
 ■ 본사 및 공장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994번지(유동상가 15동 120호) TEL/(031)492-0841(1F) FAX/(031)492-0843